

 우수콘텐츠잡지
2021

월간 미술

435

April 2021

since 1976

9 771227 312009
ISSN 1227-3120

4

 우수콘텐츠잡지
U.S. CONTENT AGENCY

정 13,000원

예술의 같고 또 다른 길에서 만나게 되는 알고리즘

성원선 | 미술비평

원성원과 성원선, 이름 덕분에 종종 사람들이 혼동하기도 하지만, 이에 더해 독일에서 공부한 공통적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배경 때문에 얼굴을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서로 바꿔 부르기도 했었다. 독일 뒤셀도르프와 쾰른에서 공부한 원성원과 마르부르크와 카셀에서 공부한 성원선의 이름은 마치 라임을 맞춘 듯하다. 그녀와 나의 인연은 아마 그렇게 시작된 것 같다.

2000년 후반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강의하고 있을 때 원성원 작가의 작업을 처음으로 봤다. 2000년대 즈음에 유럽의 미술계에서는 사진의 확산세가 일었고, 디지털 사진이 다양한 분야의 작품에 대거 사용되었다. 특히, 디지털 포토 툴을 이용한 이미지 콜라주는 전통적 사진의 개념과 장르적 특수성을 벗어나는 과감한 시도로 자주 사용되었다. 미술사에서 보자면 포토몽타주, 포토콜라주는 입체파, 다다이스트들의 작업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기법만의 계보를 이어온다고 할 수 있다.

사진이 장르이자 매체로 존재하기에, 현대사진에서는 디지털사진과 필름사진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나도 디지털 사진기를 처음 손에 들고 사진을 찍었을 때가 1996년이었고, 데이터를 화면에 띄우고 다시 송출하고 출력하는 과정이 dpi, pixel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은 2000년이 훌쩍 넘었을 때다. 작업 과정에 개입되는 물리적인 시간들과 육체적인 노동들은 이전까지의 사진 생산과정이 아닌, 전혀 별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술이 주는 편리함만큼이나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새롭게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성원 작가의 작업은 그래서, 2000년 이후의 한국 사진계가 새로운 기술인 디지털을 받아들이는 과정처럼 동시적 현상으로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기술이 예술인 시대에 기법의 특별함보다는, 기술을 사용하며 일상의 이야기를 상상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기억과 현재 그리고 서사와 사실이 재조합되는 맥락적 접근에서 디지털 툴이 사용된다는 점이 더 설득력이 있게 보였다.

그녀의 작업 과정을 보자면, 수집 곳을 찾아 수백 수천 장의 사진을 찍고, 그것들이 저장된 수만 가지 파일에서 적당한 이미지를 찾아 선택하고, 레이어링하고, 콜라주 한다. 결과적으로는 그녀는 많은 양의 이미지를 집적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세심하게 구성된 화면으로 단 한 장의 작업을 만든다. 더 놀라운 것은 디지털 이미지를 콜라주해서 만든 작업임에도 사진 고유의 이미지 텍스처가 잘 조율되어 보인다는 점이다.

원성원 작가의 작업은 그녀의 기억의 채집망을 보는 것 같다.

성원선

Seoung Wonsun (b.1969)

홍익대에서 금속공예, 독일 마부르크 대학에서 미술사를 공부하고, 카셀대 조형예술학과에서 영상설치에 대한 작품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에서는 도시-공공미술을 주제로 예술학박사학위를 홍익대에서 받았다. 홍익대, 숙명여대 외에 여러 대학에서 강사와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고, 다수의 공공미술과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자문으로 참여했다. 현재는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에서 문화정책을 맡고 있다.



그리고 그녀가 작업한 시공간이 압축된 사진을 보는 것은 마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듯하다. 하나하나의 이미지마다 좌표와 시간이 찍히는 걸 상상해보자면 작업의 과정은 그림을 그리는 과정과 유사하다. 그녀가 그리려는 소재를 찾아가는 긴긴 탐색의 시간과 컴퓨터 저장파일 속에 있는 수천, 수만의 사진 폴더에서 자신이 기억한 그 한 순간을 찾아내는 발견의 시간까지, 기가 막히게 절묘한 형태와 색깔을 맞춰나가는 조율의 과정들은 작업적 수월성에서 디지털 매체보다는 회화라는 매체가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만큼 디지털 툴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기계와 이미지 간의 기술적 틈을 메워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인터뷰를 위해 그녀의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 한편에는 드로잉 작업들이 놓여있었다. 주로 가는 색연필로 그려진 꽃잎이나 식물의 줄기가 겹겹이 보이는 것 같은 드로잉들은 마치 그녀의 사진이 픽셀을 하나하나 그려나갔듯이, 색연필로 한 필, 한 필 없어나간다.

이미지와 이미지를 결합하는 것으로 원성원 작가의 작업을 이야기하자면, 2017년 아라리오갤러리에서 열린 전시에서 그녀의 이미지 상징체계들은 주변인으로 작가의 지인들과 자본주의 사회의 인물들이 결합된다. 풍량이 치는 바다에서 표류하는 펭귄과 하이에나는 수동적이나 재빠르게 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존재, 그러나 시대와 장소를 기다리는 언론인이거나, 어두운 숲속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있는 부엉이와 축축한 눈을 피해가며 조금씩 발을 떼는 학은 한 사회 리더의 알레고리이다.

세상에는 서로 결합되는 수많은 이유와 나름의 알고리즘이 있다. 유사한 이름을 가진 그녀와 나의 사이도 그렇다.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마치고, 유럽을 경험하고, 이 사회에서 예술가와 평론가로 살아가는 것은 서로 같으면서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의 예술세계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지 않나 싶다. 2021. 03. 봄비가오는 날

원성원

Won Seungwon(b.1972)

중앙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에서 순수미술 석사, 쾰른 미디어예술 대학에서 미디어아트 석사를 졸업했다. 거대한 미니멀 조각을 추구하던 유학시절, 연약한 육체와 타협을 보고, 사진이라는 매체로 평면조각을 시작했다. 귀국 후 아라리오갤러리, 가나 컨템포러리, 대안공간 루프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한미사진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아르코미술관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남양주에서 작업 중이다.



위 왼쪽 <줄부의 텃밭(The Kitchen Garden of Parvenu)> c-print 138×195cm 2013

오른쪽 <초록풀 두건(A Bandana of Green Grasses)> 종이에 혼합재료 112×76.5cm 2017

아래 <IT전문가의 물풀 네트워크(The Water-grass Network of IT Specialists)> c-print 178×297cm 2017